September 25, 2006
문화일보

참전용사와 환담 유럽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4일 오전(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시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탑을 방문, 참전 용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 희생자 덕에 한국번영"

박근혜, 6·25참전국 벨기에의 '숨은 공로자' 면담

독일선 朴 前대통령이 갔던 탄광촌 방문하기로

유럽방문을 위해 23일 출국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북동쪽 리에주를 찾아 1950년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로 드 멜렌 전 국방장관의 미망인인 자클린 드 라렝(95)여사를 위문했다.

2002년 별세한 남편에 대해 자클린 여사는 "남편이 50세 나이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참전했다"고 회고하자 박 전 대표는 "참전의 숨은 영웅들이 국민들에게도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자클린 여사가 "한국은 번영했는데 북한은 잠잠해졌느냐"고 묻자, 박 전 대표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이다. 현재 핵문제로 대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전대표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서도 참전용사 대표들과 덕담을 나눴다. 최근 한국을 갔다왔다는 한 참전용사가 "너무나 달라진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너무 기뻤다"고 말하자 박 전 대표는 "한국전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참전용사님들이 계셔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고, 저도 이처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전 대표의 유럽순방(23일~10월2일)은 본격적인 대권행보의 신호탄이다. '박정희 유산정치', '여성·모성리더십', '안보지도자' 등 화두는 여러 갈래다.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 간부들과 만나고 독일 첫 여성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도 회동한다. 그를 공식초청한 아데나워 재단에서 '독일과 한국, 함께 열어가는 미래'란 제목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64년 방문했던 독일 탄광촌도 방문한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김상협기자 jupiter@·연합뉴스

September 25, 2006
문화일보

Übersetzung

„Südkorea hat den Gefallenen des Koreakriegs für ihr Opfer zu danken“

Park Geun-hye traf in Belgien die Kriegsbeteiligten, die nur selten Beachtung finden. So traf sie die Witwe des ehemaligen belgischen Verteidigungsministers, der im Koreakrieg gekämpft hatte, und bedankte sich bei ihr für den Einsatz ihres Mannes. Bei Gesprächen mit Familien anderer Kriegsbeteiligten spürte sie die allgemeine Freude darüber, dass Südkorea sich so stark entwickelt hat.

In Deutschland besucht Park derweil ein Bergbaudorf, das der ehemalige Präsident Park Jong-hee bereits einst besichtigt hatte.
In der Konrad-Adenauer-Stiftung, die sie offiziell eingeladen hatte, wird Park eine Rede über „Korea und Deutschland: gemeinsame Zukunft“ halten.